

獨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쾌거

LS산전 전력배전 솔루션 분야 제품 2종

LS산전은 자사 전력배전 솔루션 분야 대표 제품인 'GIMACiEX(사진)'와 'DMP i'가 2019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프리덕트·인더스트리·툴스'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 하노버 소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디자인 기관인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은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 우수한 평가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매년 iF 디자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디자인 상을 수상한 'GIMACiEX'와 'DMP i'는 LS산전 전력 배전 솔루션을 대표하는 제품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G하우시스 바닥재 '프레스티지 크랙 콘크리트'

LG하우시스는 상업공간에 쓰이는 타일 바닥재 '프레스티지-크랙 콘크리트(사진)'가 '2019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섬유, 벽장재, 바닥재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레스티지-크랙 콘크리트는 LG하우시스만의 차별화된 기술인 연속동조염보 공법을 통해 콘크리트의 느낌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제품이다.

LG하우시스는 프레스티지-크랙 콘크리트가 갈라짐과 거친 표면 등 실제 콘크리트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을 기존 바닥

재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구현한 점과 보는 각도에 따라 표면의 입체감이 달리 보이는 특수 인쇄 방식을 적용한 디자인 측면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SK매직 올인원 직수정수기·전자레인지 등 4종

SK매직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올인원 직수정수기, 올인원 직수열음정수기, 워터룸 UV안심케어 정수기, 전자레인지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SK매직의 주력 제품인 올인원 직수정수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기능은 최대화 할 수 있는 17cm의 좁은 폭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물이 흐르는 관이 청결할 수 있도록 내부에는 오염 및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직수관과

큰 출수구를 적용한 디자인이 인정을 받았다.

올인원 직수열음정수기는 25cm의 최소 폭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얼음과 물을 구분하는 중앙의 틈새 라이팅으로 사용자가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한 점이, 워터룸 UV안심케어 정수기는 파스텔톤 라이팅을 채용해 직관적인 상태 알립과 감성 무드 램프 효과를 가능하게 한 점이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IBK기업은행-경상북도, 동반성장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14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경상북도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기업은행에 100억원을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저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김도진 기업은행행장(오른쪽)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롯데홈쇼핑, 글로벌기준 사회적 책임 강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롯데홈쇼핑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강철규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UN) 산하 기구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포함시켜 지속 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왼쪽),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오른쪽)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특허분쟁, 소송 아닌 '협상'으로 윈윈



오성환 변호사의

기특한 칼럼

# 국내 유명 면도기 회사 A는 4중날 면도기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형 면도기 회사인 B가 3중날 면도기에 대해서 이미 특허등록을 받아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A회사는 미국에 수출할 당시 B회사의 3중날 면도기 특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특허분쟁 결과 특허침해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해 수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B회사가 이내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왔고, 1심에서 특허침해로 판정이 돼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A회사는 역공격할 방법을 찾았으나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묘책을 생각해냈다. A회사는 국내에서 면도기를 만들기 전에 칼을 만들던 회사였기에 성능 좋은 칼날을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

고, A회사가 제조한 칼날을 면도기에 사용하면 면도기 성능이 훨씬 향상되었던 것이다. A회사는 B회사와 협상을 통해 3중날 면도기의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낮은 로열티에 제공해주면 성능 좋은 칼날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B회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주면서 특허분쟁이 종결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었다.

특허권자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증거를 통해 주지시킴으로써 특허권자로부터 무료로 실시허락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3자의 특허권자로부터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제품의 일부 구성이라도 어떤

다른 특허를 침해하면 전체가 판매 중지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특허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특허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라이선스 계약 중에 라이선스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라이선서가 보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분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를 해야 한다. 특허분쟁을 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바른

포스코, 지역 초등생 어린이 인성교육 재능기부

포항·광양 소재 초등학교 방문 주니어 인성교실 프로그램 운영 50여명 직원 자발적 강사 참여

포스코인재창조원이 포항 청림초등학교, 광양 제철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2월 12일, 13일 '주니어 인성교실-꿈과 희망 With POSCO' 프로그램 첫 차수를 운영했다.

주니어인성교실은 포스코그룹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회사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현하고자, 직원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를 육성하는 교육 나눔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포스코인재창조원과 포스코 직원이 강사로 나서서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With POSCO 실천의 한 걸음'이라는 타이틀로 실시한 사내 공모에서 50여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은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인성 전문 프로그램인 '나, 너, 우리'를 활용해 진



지난 12일 포항 청림초등학교 '주니어 인성교실-꿈과 희망 With POSCO'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 오성근 과장(왼쪽 첫번째)과 어린이들.

행한다.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3시간 과정으로 구성했다. 1교시는 장점피자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2교시는 메시지 전달 게임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익히며, 마지막 3교시는 종이탑 쌓기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력을 배운다.

포스코인재창조원은 주니어 인성교실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전문 인성 강사로 육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인재창조원은 오는 3월에서 11월까지 포항, 광양 지역 희망 초등학교를 방문해 500여 명의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성교실을 운영한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화재서비스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 2만장 기부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은 지난 13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2만장을 기부하고 서울 노원구 서울연탄은행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성화재서비스 신입사원 및 임직원 40명은 기부한 연탄 2만장 중 일부를 직접 배달했다. 기부한 연탄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적립해 모은 기부금을 토대로 마련됐다.

삼성화재서비스 관계자는 "전달한 연탄으로 외로운 이웃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89@

인사

- ◆ 고용노동부(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강금식 △ 일자리정책평가과장 권진호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최준하 △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편도인 △ 퇴직연금지급과장 여성철 △ 진주지청장 강성훈 △ 목포지청장 김남용 △ 여수지청장 장영호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종호
- ◆ 농림축산식품부(국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장 김중구(국장급 전보) △ 대변인 김정욱 △ 정책기획관 박범수 △ 유통소비정책관 김정희 △ 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안용덕(주재관 교체) △ 외교부 강효주 △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과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연구소 교육과장 안중현
- ◆ 방송통신위원회(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김재영 △ 이용자정책과장 최성호 △ 국립외교원 교육협력과장 김영관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본부장·센터장 전보) △ 연구기획본부장 윤정호 △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권태수 △ 기술사업화센터장 오지택 △ 경영지원본부장 박대식(팀장 전보) △ 궤도노반연구팀장 사공명 △ 첨단인프라연구팀장 이일화 △ 전철 전력연구팀장 김형철 △ 중소기업지원팀장 박성

- 혁 △ 시설안전팀장 이안호
- ◆ 아시아경제 △ 디지털뉴스부장 정영일

부음

- ▲ 유숙자씨 별세, 박정태(국민일보 편집국 편집위원)·미경·선경씨 모친상, 김호일씨(루미테크대표) 장모상, 배미애씨(도봉초등학교 교사) 시모상 = 1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2-2072-2027
- ▲ 오경환(샘표식품 부사장)씨 별세, 오시정·국현씨 부친상 = 14일, 경기도 이천 효자원 장례식장 207-208호, 발인 16일 오전 6시, 031-644-4700
- ▲ 박영주씨(전 유한양행 전무, 전 유한화학 사장) 별세, 박승준(현대상선팀장)·승호(삼성SDS 수석 컨설턴트)·정원·숙원씨 부친상, 성계용·조인식(이피케이(주) 대표) 장인상, 정은영·지민주씨 시부상 = 14일 오전 2시46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2-3410-6902
- ▲ 권준학씨(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모친상 = 14일, 평택시 오성면 농협연합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31-684-6444